

제1장: 버려진 골목에서 피어난 첫 울음

"창밖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는 매일 밤 몰래 울었다."

웃음은 늘 창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나를 위한 음악처럼 흘러오면서도, 동시에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담장을 넘어오는 그 소리는 또래 아이들의 장난기 섞인 웃음소리였고, 가끔은 젊은 어른들의 술기운 어린 농담 소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내 방안, 어둡고 싸늘한 그 공간에는 오직 나 혼자뿐이었다. 말 대신 한숨이 무거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그것은 자주 나를 놀러왔다. 내가 태어난 그 집은 집이라기보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벽 네 개에 불과했다.

어릴 적 내 발 아래를 맴돌던 것은 따뜻한 손이 아니라, 부서진 장난감과 곰팡이 핀 바닥이었다. 부모의 손길보다 먼저 배운 것은 배고픔을 참는 법이었고, 누군가를 믿기보다 빨리 숨는 법이었다. 골목 끝, 세상으로부터 숨겨진 그 집은, 마치 나를 세상에서 잊힌 존재로 빚어내려는 장소 같았다. 사람들은 내가 있는 줄도 몰랐고, 나 역시 그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종종 거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넌 왜 여기 있는 걸까?" 내 얼굴은 때로 나조차 낯설었다. 눈빛은 늘 무언가를 잃은 것처럼 비어 있었고,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말을 담고 있었다. 어린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침묵을 배웠고, 그 침묵이 내 마음의 언어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늘 바빴다. 바쁘다는 말은, 곧 나에게 무관심하다는 의미였다. 아버지는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았고, 그의 존재는 술 냄새와 함께 나를 무겁게 덮쳤다. 무거운 침묵, 무거운 한숨, 무거운 어깨들. 나는 그 틈에서 나를 자꾸만 접어야 했다.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다. 아니, 내뱉야 아무도 듣지 않으리라는 걸 너무 일찍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정말 추웠다. 겨울바람이 창틀 사이로 파고들었고, 나는 누더기 이불 하나에 몸을 말았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아팠던 것은, 내 눈앞에서 따뜻한 국 한 그릇 없이 저녁을 끝내야 했던 식탁의 적막이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내겐 '오늘도 살

아냈다'는 외침 없는 투쟁의 끝이었다.

어린 마음에도 '나는 왜 이곳에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이 들었다. 아이들은 보통 "내일은 뭘 하고 놀까?"를 고민하지만, 나는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했다. 나의 첫 울음은, 갓난아기의 울음이 아닌, 세상의 부조리함을 향한 첫 항변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한 그 항변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나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무너지는 와중에도 나는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슬픔은 나를 갉아먹었지만,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도 만들었다. 버려진 골목에서 피어난 울음은 그렇게, 어느새 나만의 저항이 되었고, 숨겨진 기도가 되었다.

나는 다른 집의 불빛을 자주 바라보곤 했다. 따뜻한 등불 아래서 웃는 가족, 수저 부딪히는 소리, 어린아이의 재잘거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겐 다른 별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다. 내 방 창밖엔 가로등 하나 없었고, 내 마음속에도 빛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삶이란 말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내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 같았다.

어느 날, 마당에서 굴러다니던 작은 구슬을 줍다가 그만 아버지의 구두에 걸려 넘어졌고, 그것이 그날의 맴을 불렀다. 말이 없었던 아버지는 손이 먼저였다. 말보다는 주먹, 이해보다는 명령, 사랑보다는 침묵이 가득 찼던 그 시간들. 나는 그 아래서 조용히 찢어졌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발, 저를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제가 눈을 감고도 울지 않게 해 주세요.'

내 안에서 눈물은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 같았다. 울지 않으면 숨이 막혔고, 울면 그나마 내 안의 뜨거운 것들이 빠져나갔다. 누군가는 울음이 약함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알았다. 내 울음은 살아 있으려는 발버둥이었다. 죽지 않기 위해, 포기하지 않기 위해 나는 운 것이었다.

학교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웃은 날 누더기였고, 도시락은 물에 불은 흰밥 한 덩이, 때

로는 그것조차 없었다. 친구란 말은 내게 사치였다. 늘 혼자였고, 말 한 마디 걸어오는 아이는 손가락질이나 놀림을 동반했다. 그럴수록 나는 벽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 아무도 지나지 않는 길목, 그것이 내 자리였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몹시 불었다. 나는 코트 하나 없이 낡은 스웨터 하나만 걸친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문득, 골목 끝 작은 성당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내 귀를 파고들었다. 눈처럼 차가운 날인데, 그 노래는 따뜻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때 처음으로 나는 ‘사랑’이란 단어에 귀를 기울였다. 그 단어는 내 삶엔 없던 것이었기에, 마치 처음 듣는 외국어처럼 생소했고 동시에 간절했다. 나는 성당 문 앞까지 걸음을 옮겼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희미한 촛불과 하얀 목소리들이 내 마음을 두드렸다. 그날 나는 성당 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에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다시 웃음소리가 창밖을 스쳤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온기를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이다. 성당에서 들은 그 노래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사랑한단 말일세...’ 그 말이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너도, 사랑받을 수 있어.”

그 말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지만,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나는 살아갈 이유를 하나 더 갖게 되었다. 그 뒤로 나는 종종 그 성당 앞을 서성였다. 문을 열 용기는 없었지만, 그 문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였다. 어두운 골목에도 길은 있었고, 그 끝엔 누군가의 빛이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그 빛에 조금씩 노출시키기 시작했다. 말을 걸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고맙기 시작했다. 누구도 내게 그런 감정을 가르쳐준 적 없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람의 영혼이

본래부터 그리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받고 싶은 그리움, 이해받고 싶은 갈망, 버림받지 않으려는 울음. 그 모든 것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밤은 여전히 길고 차가웠지만,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진 않았다. 나는 여전히 창밖의 웃음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그 웃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젠가는 그 웃음소리의 중심에 내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건, 살아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상상이었고, 나는 그 상상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 울음은 더 이상 단지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나의 선언이었다.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아파. 하지만 나는, 살아 있어.”

〈에필로그의 시: 울음의 씨앗〉

울음은 뿌리였다

차디찬 땅속 깊이 묻혀

햇빛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피하지 못한 채

조용히 숨죽이며 자랐다

언제나 어둠은 먼저 왔고

침묵은 가장 먼저 날 안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는

차마 꺾이지 않은 꽃이 되려 했다

비난이란 비가 쏟아졌고
버림이란 바람이 몰아쳤지만
나는 그 속에서 울음을 물 삼아
조용히 눈물 한 방울 피워냈다

그것이 내 첫 기도였고
내 삶의 싹이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울음은 나의 무너짐이 아니라,
내가 피어나기 위한 시작이었다고.

〈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외롭고 지친 너에게〉

이 장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당신도 울음으로 밤을 채워본 적 있나요?
남몰래 흘린 눈물이 베개 속을 적셔도
아무도 그 아픔을 물어주지 않았던 날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당신의 울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강한 생존의 증거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오래된 상처에 조용한 손수건이 되기를,
당신의 닫힌 마음에 작은 창 하나를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도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제2장: 감옥보다 더 차가운 집

— “밖은 추웠지만, 집은 더 추웠다. 말 대신 한숨이 머물던 곳에서 나는 버티는 법을 배웠다.”

밖은 추웠다. 하지만 집은, 그보다 훨씬 더 추웠다.

겨울 바람은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집 안의 공기는 그보다 더 깊고 차갑게 나를 물들였다.

나는 그 집을 '감옥보다 더 차가운 집'이라 불렀다. 쇠창살도, 자물쇠도 없었지만, 그곳은 나를 가둔 완벽한 감옥이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 집의 자식이 아니라, 어느 날 불쑥 배달된 실수 같았다.

어릴 적 나는 몇 번이고 집을 도망쳤다. 눈이 내리던 날, 발끝이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거리로 나섰다.

누군가 내게 “왜 그러니?”라고 물어만 주었더라도, 그때 나는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고,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공원 벤치 밑에 웅크렸다.

구겨진 나뭇잎처럼, 누구도 주워 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어린 내가 그곳에 있었다.

다행히도 동네 아주머니가 나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나를 데려갔고,

나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말 대신 침묵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집' 하면 따뜻한 불빛과 어머니의 손길을 떠올린다지만,

내게 집은 늘 조용한 처벌의 공간이었다. "너는 실수였어."라는 말을 대놓고 듣지는 않았지만,

그 말은 늘 공기 중에 맴돌았다. 장난을 치면 미움받았고, 웃으면 무시당했다.

어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식사나 잠자리가 아니라, "넌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내게 해준 적 없었다.

점점 나는 말수가 줄었다. 침묵이 안전했고, 무표정이 방어였다.

하루는 아버지가 말했다. "넌 우리 집에 짐일 뿐이야."

그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갈랐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

믿는다는 것은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기대는 반드시 상처로 되돌아오니까.

나는 방 안에서 벽지를 뜯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묻고 또 물었다. "나는 왜 살아 있지?" "죽으면 끝일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노트를 펼쳤다. 글을 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는 조금씩 살아남기 시작했다.

글은 내 유일한 친구이자, 어쩌면 나 자신에게 보내는 SOS였다.

"괜찮지 않아"라고 적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았던 내 삶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에게 말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도 나는 외톨이었다. 점심시간이면 옥상이나 화장실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체육 시간에는 늘 '짝이 없는 아이'로 남았다.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 대신,
나는 '저 애', '개', 혹은 아예 불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갔다.
그럴수록 나는 종이를 접었다. 종이학, 종이배, 종이별...
접을수록 더 작아지는 내 마음은 결국 아무도 볼 수 없을 만큼 작아져 버렸다.

그런 나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길을 걷다 문득 골목 끝 성당에서 들려온 찬송가 소리에 발이 멈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단 한 줄이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내 마음 어딘가를 울렸다.

나는 다음 날도 그 성당 앞으로 갔다. 멀찍이 서서 노래를 듣기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
각을 하게 된 날이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문을 열었다.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고, 그 안에는 전
혀 다른 온도가 있었다.
기도하던 사람들, 눈 감은 얼굴들, 그리고 촛불 사이로 흐르는 평화.
그 공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살아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성당을 찾았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공간에서 나는 말없이 회
복되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은 기적 같았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버틸 수 있었다.

집은 여전히 차가웠다.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고, 아버지는 여전히 무관심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감옥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십자가 목걸이를 가슴에 품고, 글을 쓰는 손끝에 희망을 얹으며, 나는 조금씩 걸어 나왔다.

울지 않기 위해 버티던 내가, 이제는 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로워졌다.

〈에필로그의 시: 차가운 집에 핀 기도〉

방은 있었지만, 품은 없었고말은 있었지만, 따뜻함은 없었다나는 울음 속에서 자라났고침묵 속에서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했고나는 그들의 눈빛을 두려워했다그러나 어느 밤, 기도처럼 울던 날내 안의 얼음이 살며시 녹기 시작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그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 차가운 집 안에서도사랑을 기억하는 존재로 남고 싶었다

〈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차라리 감옥이라면, 누군가는 찾아오고

무슨 죄였는지 말이라도 듣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차가운 침묵만 있는 곳에서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고통을 견뎌냈겠지요.

당신의 울음이 정당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사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글은, 당신의 그 견뎌움을 기억하고자 씌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당신의 존재는 따뜻합니다.
이 장을 덮는 지금, 그 사실만은 기억해 주세요.

제3장: 무너진 시간의 벽

— “삶은 내게 묻지 않았다. 어떻게 견디느냐고, 왜 아프냐고. 그저 지나가며 내 등을 떠밀었다.”

시간은 늘 내 편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했지만, 내게 시간은 상처 위에 덧나는 먼지 같았다. 아물지 않은 흉터 위에 다시 삶이 쌓였고, 그 무게는 날마다 나를 아래로 끌어내렸다. 무너진 벽처럼 균열 난 내 하루들은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성당에서 잠깐 마주했던 온기, 글을 통해 발견했던 생의 조각들. 그것들조차도 무거운 현실 앞에서는 마치 종이배처럼 물에 잠겨 사라져갔다. 나는 다시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그곳에는 햇빛조차 닿지 않았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더 이상 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강제로 배워야 했다. 더 이상 눈물을 보일 수 없었고, 상처를 드러낼 수 없었다. 친구라는 단어는 여전히 나와 거리가 멀었고, 사람들과 섞일수록 나는 더 외로워졌다. 혼자라는 사실은 참을 만했지만, 혼자인 줄 모르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건 잔인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늘 빨랐다. 누군가 나를 부르기 전에, 누군가 내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나는 사라져야 했다. 복도 끝 창가에 기대어 있던 나는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내게 배인 습관이었다. 눈을 마주치면 마음을 들킬 것 같았고, 마음을 들키면 다시 상처받을 것이 뻔했다.

하루는 급식 시간, 실수로 쟁반을 엎질렀다. 국이 바닥에 쏟아졌고,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또 재야?” “집에서 맞고 와서 저래?” 하는 말들이 쏟아졌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치우고 나왔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조용해졌고, 더욱 그림자처럼 살았다.

도서관 한쪽 구석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글을 썼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글, 그러나 나만은 알아보는 글. 나의 이야기, 나의 분노, 나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나는 종이 위에 새겼고, 그것만이 내 존재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 무렵,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벽을 향해 걷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진 회색 벽. 아무리 걸어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았고, 벽은 점점 높아져 하늘을 가렸다. 나는 그 벽 앞에서 무너졌고, 주저앉아 울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현실보다도 더 선명했다. “너는 무너지지 않았다. 단지 무릎 꿇었을 뿐이다.”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이번에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었다.

“나는 오늘도 살아 있다.”

그 한 문장을 쓰는 데 한참이 걸렸다. 너무 단순한 말인데도, 내겐 너무 먼 이야기였기에.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매일 한 문장씩 나에게 쓰기 시작했다. “잘 버텼어.” “오늘도 나았어.” “다음에 울어도 괜찮아.”

한 달쯤 지났을까. 국어 선생님이 내 노트를 발견했다. 조용히 불러 앉히고 묻지 않고 읽어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 글,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을 거야. 너는 생각보다 강한 아이야.” 그 말은 누군가 처음 내게 해준 진심이었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밤마다 되새겼다.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그날 이후, 나는 국어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내게 책을 한 권 건네주셨다. 김남주의 시집이었다. 그 속에 담긴 언어는 날카로웠고도 따뜻했다. 나는 시를 베껴

쓰며,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닿을 말을 쓸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다 생애 처음으로 백일장에 나가게 되었다. 선생님이 내 글을 보고 신청서를 내셨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았고, 마치 세상에 단 한 사람만 남은 듯 고요하게 펜을 들었다. 주제는 '희망'이었다. 나는 울면서 글을 썼다. 아버지의 술 냄새, 어머니의 침묵, 내 방의 침묵, 그리고 어느 날 성당 문 틈 사이로 스며든 찬송가. 그 모든 것을 꼭꼭 눌러 담았다. 글이 끝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학교 방송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걸 들었다. 백일장 장려상. 상장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읽었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사실이 전부였다. 나는 처음으로 '인정'이라는 단어의 온도를 느꼈다. 작고 흐릿한 불빛 같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나를 덥혀주었다.

하지만 그런 따뜻함도 오래가진 않았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버지는 거친 숨을 내쉬며 나를 노려봤다. "너는 왜 맨날 어슬렁거리냐? 집에 있으나 마나야." 그 말은 또다시 나를 깊은 골짜기로 밀어 넣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노트북을 꺼냈다. 이번엔 내 이야기를 처음으로 타인에게 썼다. 인터넷 익명 게시판. 내 이름도, 얼굴도 필요 없는 그곳에 나는 글을 올렸다.

놀랍게도, 댓글이 달렸다. "당신의 이야기에 눈물이 났어요." "나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울었다. 모니터 앞에서, 말 한 마디 없는 집 안에서, 처음으로 '공감'이라는 생명의 줄을 잡은 기분이었다. 내 글이,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은 내게도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기도했다.

"하나님, 만약 제게 글을 주신 것이라면, 저는 그것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썼다. 무너진 벽 사이를 기어 다니며, 금이 간 시간 위에 단어를 놓았

다. 언젠가, 누군가를 위한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에필로그의 시: 무너진 시간의 벽 앞에서〉

시간은 벽이었고

그 안에 나는 갇혀 있었지만

한 줄기 빛이 흘러들었고

그 틈 사이로 나는 스스로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은 내 울음을 몰랐지만

나는 내 안의 소리를 들었다

조용한 외침, 작지만 단단한 결심

그리고 아주 오래된 희망 하나

무너진 벽 아래서 나는 다시 일어났다

피 흘리는 손으로도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당신의 벽에도 틈이 있다면〉

당신이 세운 그 단단한 벽, 그 안에서 고요히 무너지고 있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얼마나 깊이 상처를 품고 살아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벽에도 분명 작은 틈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요.

그 한 줄기의 빛이, 당신의 생명을 꺼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런 빛이 되길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제4장: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

— “사람은 때로 아무 말 없이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조차 삼킨 채 버티는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 내 삶은 다시 한 번 심연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세상은 잠시 나에게 손을 내미는 듯 보였지만, 그 손은 끝내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다. 나는 다시, 무너졌다.

고등학교는 또 다른 투쟁의 공간이었다. 커진 교복처럼, 세상의 무게도 더 커졌다. 성적은 숫자가 되었고, 사람은 경쟁자가 되었다.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는 복도 속에서 나는 여전히 내 그림자를 좇고 있었다. 친구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안에 내가 설 자리는 없었다. 나는 투명했고, 무표정했고, 무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가끔은 정말 말하고 싶었다. “나도 괜찮지 않아. 나도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나는 글로 울었다. 글로 말하고, 글로 숨 쉬었다.

어느 날, 문학 수업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써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모두가 장난처럼 웃으며 종이를 넘겼지만, 나는 오래도록 멈춰 있었다. 그리고 적었다. “나는 사라지고 싶지 않아서, 글을 씁니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손이 떨렸다. 누군가 그 문장을 읽고 나를 볼까 봐 두려웠고, 동시

에 누군가가 정말 나를 보아주길 바랐다. 그 이중의 감정 속에서 나는 여전히 아이였다.

그 시기, 아버지의 폭력은 잦아졌고, 어머니는 더욱 침묵해갔다. 어머니의 말없는 저녁은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아팠다. 식탁에 놓인 반찬보다 더 차가운 건, 엄마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 식탁 앞에서, 밥을 씹는 연습보다 고통을 씹는 법을 먼저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넌... 그냥 버텨."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말 대신 침묵을, 꿈 대신 체념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그 무렵, 나는 학교 뒤편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다. 벤치에 앉아 구겨진 시집을 펼치고,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글을 썼다. 누구도 보지 못하게, 나만 아는 이야기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는 속삭였고, 나는 그 속삭임을 시로 옮겼다. 세상은 여전히 날 몰랐지만, 그 나무만은 나를 기억해주는 듯했다.

작은 변화는 도서부 활동에서 시작됐다. 책을 정리하고, 오래된 도서 목록을 새로 쓰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평화를 느꼈다. 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내게 쉼을 주었다. 그러던 중, 한 선배가 내 글을 보게 되었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거... 너 글 맞지? 진짜 좋다."

그 말은 봄 햇살 같았다. 아직은 차갑지만, 분명히 따스함이 스며드는 그런 햇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고, 그날 하루는 이상할 만큼 기분이 맑았다.

나는 조금씩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피하고만 싶었던 감정들, 외면했던 기억들. 그것들을 글로 마주하며, 나는 나를 이해하려 애썼다.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 나도 내가 부서지지 않도록.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심리검사를 했다. 검사를 맡은 상담 선생님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혹시, 너... 많이 외롭지?"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울음은 아무 예고 없이 터졌고, 나는 처음으로 교실이 아닌 공간에서 내 마음을 보였다.

상담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말로 나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건 고통스러우면서도 해방이었다. 말은 글보다 더 생생했고, 내 마음을 흔들어놓았다. 나는 말했다. “누구도 저를 기다리지 않아요. 집에 가도,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 말에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여기서는, 내가 들을게.”

그 말 한 마디가 나를 지탱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상담실에 매주 찾아갔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나는 느꼈다. 이곳에서는 내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담 선생님은 언젠가 내게 말했다. “너는 자신을 잘 관찰하는 아이야. 그건 글을 쓰는 사람의 첫 번째 재능이야.”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믿는다는 건, 상처받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 무렵, 글쓰기를 넘어선 새로운 시도도 해보았다. 동아리 활동 중 시낭송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내 목소리로 직접 내 시를 낭독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그 순간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되었다. 글은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고, 말은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작고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이건 내가 학생 시절에 쓴 글이야. 너한테 주고 싶었어.”

노트 속에는 선생님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었다. 그 역시 외로웠고, 상처받았고, 울고 있었다. 나는 울면서 그 글을 읽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도 자라고 있었다. 단단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여린 뿌리라도 땅을 뚫을 수 있듯, 내 안의 희망도 그렇게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에필로그의 시: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

세상은 무너졌지만
나는 그 안에 앉아 있었다
무너지지 않으려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숨을 쉬기 위해

침묵은 무서웠고
말은 멀었지만
눈빛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
그것만으로도 나를 지키는 날들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흔들렸고
천천히 깨졌고
그러다 아주 느리게, 다시 불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다시, 나를 살았다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세상에 말했다
“나 여기 있어요. 나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아주 작은 미소로
나의 존재를 안아주었다

〈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흔들리며 살아가는 당신에게〉

삶은 늘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금이 가고, 균열이 번지고, 작은 틈으로 어둠이 들어올 뿐이죠.

하지만 그 틈 사이로, 빛도 들어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흔들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증거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이 글이 당신의 마음 한 구석에 머무는 온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도 글을 쓰고 싶다면, 쓰세요.

울지 못한 날들을 대신해,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이야기들을 위해.

그 글은 언젠가 당신을, 그리고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눈물로 길을 잇다

— “세상이 날 버렸다고 느낀 그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소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낭만적이지 않았다. 철문이 열렸을 때, 내 가슴은 터질 것처럼 벅찼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함이 함께 있었다. ‘이제 진짜 세상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세상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낯선 풍경, 변해버린 거리, 낯 익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의 표정. 나는 마치 시간의 벽 너머에서 살아돌아온 유령 같았다.

출소 직후, 가석방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감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기적인 출석, 관할 경찰서의 확인 전화, 담당 형사의 예리한 눈빛. 나는 매일 누군가의 '주목' 속에 살아야 했다. 감옥은 벽으로 나를 가뒀지만, 이 감시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투명하게 만들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판단의 칼날이 내 하루를 갉아먹었다.

처음에는 용기를 내어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이력서의 공백을 묻는 사람들, 짧은 인터뷰 속에서 감추지 못한 과거의 그림자. "혹시 수감 기록 있으세요?"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래, 나는 이미 낙인찍힌 사람이구나.'

작은 희망조차 세상 앞에서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냥 다시 들어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밖은 너무 아프다.' 차라리 규칙 있는 감옥이 자유보다 더 너그러울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현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다시 불드셨다.

어느 날 밤, 비 오는 거리. 쫓기듯 걷던 나는 우연히 골목 끝 작은 교회를 발견했다.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곳에서, 목사님은 조용히 내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셨다.

"하나님, 이 아들을 세상이 기억하는 죄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기억해주세요."

그 기도가 내게는 '살 수 있다'는 허락처럼 느껴졌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사람다운 나'가 조용히 몸을 일으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새벽 청소, 공장 일용직, 오래 서 있어야 하는 마트 안내 업무까지. 가릴 수 없었다. 하루하루를 생존처럼 살아가며, 나는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무릎 꿇고

옆드려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 기도했다. 다시 쓰러지지 않기 위해, 다시 용기를 내기 위해.

그러나 세상은 쉽게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한 번은 자취방 근처 슈퍼에서 담당 형사가 나를 불렀다. “어제 편의점 근처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그 시간대에 어디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일조차 몰랐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로 나는 또 피의자가 되었고, 몇 시간 동안 질문을 받아야 했다. 서러움과 모멸감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왜 나한테만 이래요 ...”

밤이면, 나는 혼자 눈물 삼키며 하늘을 향해 속으로 소리쳤다.

“하나님... 정말 계세요? 왜 저만 이렇게 아프고, 외롭고, 버려진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이 끝나고 나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음성은 확신이라기보다, 작고 희미한 속삭임이었지만, 그것이 내 삶을 잇는 유일한 줄이었다.

그 줄을 붙잡고 나는 매일 새벽 교회를 찾았다. 기도하며 울고, 울면서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때로는 세상에 절망했지만, 매번 기도로 돌아와야만 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진실해졌고, 가장 작아질 수 있었다.

비록 세상은 나를 여전히 '전과자'로 보았지만, 나는 내 안의 이름을 다시 지어가고 있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쓰임 받을 존재로.

하루는 작은 마을의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었다.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저 책을 정리하며 조용히 일할 수 있는 공간. 거기서 나는 처음으로 '평안'이라는 단어를 진심으로 느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는 왜 책을 좋아해요?"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책은... 아무것도 묻지 않거든. 그냥 들어줘."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매일 와요."

나는 웃었다. 정말 오래간만에, 아무 조건 없는 웃음이었다. 그 웃음은 나를 구원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공공기관에 지원하면 거절당했고, 때때로 외로움에 무너졌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알았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였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이제 내 인생은 죄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을 남기리라.'

지금도 누군가는 내 과거를 기억하며 나를 경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하나님은 내 현재를 보시고, 내 미래를 준비하신다.

나는 눈물로 길을 잇고 있다. 그 길 끝에 분명히 빛이 있으리라는 것을 이제는 믿는다. 비록 몸은 망가지고, 때로는 모멸감에 주먹을 꽉 쥐어야 했지만, 나는 다시 길을 내고 있었다. 눈물로, 기도로, 침묵으로.

〈에필로그의 시: 눈물의 길, 은혜의 끝〉

눈물이 나를 데려간 곳에서
나는 다시 숨 쉬었다
버려졌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내 등을 감싸고 있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분은 내 이름을 부르셨다
“아들아, 가자”

길이 없는 곳에서도
나는 기도로 길을 냈고
사람들이 닫은 문 앞에서도
나는 눈물로 두드렸다

그리고 결국, 그 길 끝에
빛이 있었다

〈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눈물의 자리에서 서 있는 당신에게〉

당신이 지금 눈물 흘리는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언어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흔들림, 당신의 상처,

그 모든 것이 결국

은혜의 흔적이 되어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품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길을 잇기를.

눈물 위에 피는 빛은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걸,

제가 살아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6장: 용서 없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 “나는 참회했고,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세상은 내게 ‘평생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그때 그 사람 맞죠?”

“그분... 전과자잖아요.”

“아, 좀 조심하세요. 옆에 두기엔 좀 불안해서요...”

이런 말들을 나는 수도 없이 들었다.

마주보는 얼굴보다 돌아서서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더 날카롭게 찔렀다. 그들의 눈빛엔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은근한 멸시가 스며 있었다.

나는 죄를 지었다. 벌을 받았다.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세상은 용서를 해주지 않았다.

출소한 뒤에도 나는 매일 과거의 그림자와 함께 걸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군가 내 '이력'을 알게 되는 순간 삶은 빼걱거리기 시작했다.

처음 취직한 공장에서 사람들은 잘 대해줬다. 묵묵히 일만 하면 된다고 해서 나는 말없이 땀을 흘리며 일했다. 그러나 3개월쯤 되었을 때, 공장장 책상 위에 놓인 서류에서 누군가 내 전과 기록을 보았고, 그 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같은 식탁에 앉지 않는 사람들, 대놓고 말을 아끼는 동료들, 심지어는 "저 사람 때문에 불안하다"며 팀장에게 이직을 요청한 이들도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말없이 책상을 정리했다. 그 누구도 붙잡지 않았다.

길거리로 나와 작은 벤치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세상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수감 중일 때보다 더 숨쉬기 어려운 현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그 죄를 지은 사람의 과거 자체를 제거해버리고 싶어한다는 걸.

그러나 그럼에도 살아야 했다. 하나님은 날 놓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가방 하나 들고 새벽에 신문 돌리고, 식당에서 설거지 하고, 막노동 현장에서 하루종일 먼지를 마셨다. 누군가 이름을 묻지 않고, 경력을 따지지 않는 그 현장이 내겐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그러나 내 존재는 여전히 투명했다. 집을 구하려 해도 전과자임을 고지해야 했고, 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이력서엔 10년이 넘는 공백이 있었고, 면접관은 그런 내 앞에서 형식적인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사회는 말한다. "두 번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일흔 번의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분노 대신 기도를 선택했다. 눈물 대신 인내를 선택했다. 상처 대신, 사랑을 선택했다.

어느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내게 말했다.

"김 형제, 세상이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아들의 자격으로 세우셨어요."

그 말에 나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울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새겼다.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이 내게 용기를 주었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되어주었다.

그 무렵, 한 청소 업체에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었다. 사장님은 내 이력을 듣고도 그저 이렇게 말했다.

"그럼,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나도 옛날에 방황했어."

그 말은 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 깨끗이, 성실하게 청소했다. 화장실, 사무실, 계단, 내 손을 거친 곳마다 하나씩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다.

한 번은 사장님이 말했다.

"김 씨는 진심이 있어. 그게 느껴져."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시울은 뜨거웠다. 그때부터 내 안에 다시 불이 켜졌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 중고 장비를 하나씩 구입했고, 소자본으로 소규모 청소 용역 사업을 시작했다. 비록 작았지만 '내 이름'으로 세운 일이었고, 나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고용한 직원 두 명에게는 절대 묻지 않았다. "전과 있냐"는 말 따위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사람은 과거보다,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어느 날, 일하던 건물에서 한 어르신이 내게 말했다.

"아저씨, 오늘 화장실 향기가 참 좋네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내 존재가 누군가의 일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하나가 나를 다시 살게 했다.

또 하루는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사실... 저도 예전에 한 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날, 그는 내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나는 또 한 번 배웠다.

나는 '과거를 묻지 않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누군가의 상처가 판단이 아니라 이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세상. 그래서 내 사업장의 벽에는 이런 문구를 적었다.

"여기선 이름만 물어봅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손에, 오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본 고객 한 명이 말했다.

"그 말 참 좋네요. 여긴 따뜻해요."

나는 웃었다. 내 인생에서 '따뜻하다'는 말을 듣는 일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일상 속에 담아 보내주셨다.

물론 지금도 누군가는 나를 '전과자'라 부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회복된 아들'이라 부르신다. 그 음성이 오늘도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

나는 이제 안다. 용서는 단지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으로 자라나야 하고, 그 힘은 다시 세상을 살리는 손이 되어야 한다.

내가 받은 용서를, 누군가에게 건네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살아가는 것이다.

<에필로그의 시: 기억보다 깊은 회복>

사람들은 과거를 본다

나는 미래를 향해 걷는다

하나님은 오늘을 함께하신다

내가 죄인일 때

그분은 아들이라 부르셨고

내가 도망칠 때

그분은 품으로 오라 하셨다

나는 과거가 아니라

은혜로 증명된 존재다

세상은 용서하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내가 걷는 길 위에

비가 내려도 괜찮다

그 비는 회개의 물이 되고

그 물 위에 다시 피는 꽃이 있다

<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기억에 눌러 숨죽인 당신에게>

혹시 지금도 과거의 무게에 눌러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당신의 진심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당신의 용기가 늘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지금,
한 가지는 꼭 기억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보다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세요.
당신의 발끝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은혜의 길이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제7장: 호주의 벽, 나의 붓

— “45만 원과 한 줄기 희망,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의 땅으로...”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친구는 지갑에서 낡은 45만 원을 꺼내 내 손에 쥐여줬다.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친구 몰래 눈가를 훔쳤다. 그리고 어색한 목소리로
그저 이렇게 말했다.

“고마워...”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아픔과 앞으로의 모든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렇게, 고작 45만 원을 손에 쥔 채 호주로 떠났다. 아무도 내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았다. 비자는 불투명했고, 영어는 서툴렀으며, 몸은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 하나만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었다.

처음 밟은 낯선 땅, 호주의 공기는 뜻밖에 따뜻했다. 친구의 지인이 마중을 나와 있었고, 함께 공항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한 시간쯤 달려 그분의 집에 도착했다. 작고 아담한 단층집이었다. 차고를 개조한 방, 창문 하나 없이 썰렁한 공간. 하지만 마당만큼은 푸르렀다. 초록빛 나무, 잘 다듬어진 잔디, 이름 모를 꽃들이 바람결에 흔들렸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나도 저 푸르름처럼 다시 피어나겠지...'

그날 밤, 얇은 매트 위에 몸을 눕히며 나는 다짐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번만큼은 무너지지 말자.'

다음 날부터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비자가 없는 상태였기에 정식으로 고용될 수는 없었다. 청소, 페인트, 타일, 목수 보조, 이삿짐 센터, 심지어는 건축 폐기물 처리까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했다. 현장은 거칠었고, 말은 통하지 않았으며, 임금은 체불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버티는 것, 그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언어 장벽은 컸다.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며 매일 영어를 공부했다. 길거리 벽보를 해석하고, 일터에서 들리는 단어들을 집에 돌아와 받아 적고 복습했다. 발음이 어눌하다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웃었다. 그조차도 내가 다시 사람다워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믿었던 중개인에게 비자를 사기 당했다. 조작된 서류로 인해 나는 하루 아침에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아르바이트 자리는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다. 경찰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내 신앙만큼은 꺾을 수 없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땅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마소서.' 밤마다 기도했고, 새벽마다 눈을 뜨며 다시 일터로 향했다. 나를 받아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다. 가장 힘든 곳, 가장 거친 일을 먼저 찾아 나섰다. 내 손으로, 내 땀으로 다시 인생을 짓고 싶었다.

그러던 중, 한 페인트 회사에서 장비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사장은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일에는 철저했다. 나는 그 현장에서 묵묵히 일했다. 페인트가 묻은 손, 갈라진 손등. 그것이 내 인생의 붓처럼 느껴졌다. 언젠가 이 붓으로 새로운 삶의 벽을 그릴 수 있기를 꿈꾸며, 나는 하루하루를 견뎠다.

며칠 뒤, 그 사장이 말했다. "김, 너 일 참 성실하게 한다. 기술 배워볼 생각 없나?"

그 말은 내게 벼락 같은 기회였다. 나는 눈이 빛났고, 그 길로 페인트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붓질도 서툴고, 색을 섞는 감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실패한 벽에 다시 덧칠하고, 칭찬 한마디 없이도 웃으며 일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숙련공이 되었고, 어느 날에는 내가 다른 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거칠고 낡은 벽을 새롭게 덧칠하며, 나는 깨달았다. '이 일은 단순히 색을 바꾸는 게 아니다. 이건 회복이다.' 내 인생도 그렇게 덧칠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영주권 신청 자격 허가 통보가 왔다. 처음엔 믿지 못했다. 가짜가 아닐까 싶어 손이 떨렸다. 모든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한 자 한 자 기도를 담아 제출했다.

몇 달 뒤, 나는 호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12년 실형 전과자, 불법체류자, 빈털터리 이민자. 이 모든 조건을 가진 내가 호주의 정식 시민이 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바닷가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해변은 고요했고, 파도는 부드럽게 모래를 쓰다듬었다. 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하나님, 저 같은 놈을 정말 안 버리셨군요..."

이제 내 이름 앞에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없었다. 한국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고, 나는 새 인생을 살고 있었다.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호주에서 나는 집을 얻었고, 작은 벤을 구입해 직접 페인트 공사를 수주했다. 혼자 시작했던 일이 점점 커지면서 나는 몇 명의 이민자들을 고용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절대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현재의 성실함과 내일의 가능성만을 보았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런 기회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직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다.

“사장님은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믿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예전에 너희 같은 사람이었거든. 하나님께서 날 믿어주셨으니까, 나도 너희를 믿는 거야.”

그 말에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와 함께 바닥을 칠했다. 그날 페인트의 색은 희고 밝았고, 마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덧칠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안다. 인생은 운명도 아니고, 계획대로만 흐르지도 않는다. 그러나 선택은 가능하다. 용기를 내는 선택, 버티는 선택, 그리고 누군가를 믿는 선택.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질 때, 기적은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에필로그의 시: 이방인의 땅에 핀 기도>

낮선 언어, 낯선 거리

고요한 밤, 이불 없는 차가운 바닥 위에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하나님, 여기서도 저를 보시나요?”

그 기도는 바람을 타고 흘렀고

세월은 굳은살처럼 내 손에 내려앉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붓 하나 들고, 낯선 벽을 칠하며

나는 내 삶을 다시 그렸다

그리고 그 위에 쓴다

“은혜는 어디서든 피어난다.”

〈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나는 당신에게〉

혹시 당신도 낯선 어딘가에 서 있는가요?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 곳,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걸어온 길이

당신의 길에도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45만 원, 낡은 매트, 창문 없는 방.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인생이

지금은 벽을 채색하는 붓이 되어
사람들의 공간을 다시 채워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작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가능합니다.
그 시작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얹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8장: 사랑이라는 이름의 실패

— “제가족을 지키지 못한 남자의 눈물은, 변명조차 없이 침묵으로 말한다.”

호주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나는 결혼을 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사람, 그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서로를 향한 첫 시선엔 연민이, 첫 대화엔 조심스러운 온기가 묻어 있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버틸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에 작은 불을 지폈다. 나는 내 지난날을 안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보다 손이 먼저였고, 약속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먼저였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다시 살아보자고 약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태어났다.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말없이 울었다. “아빠”라는 말이 그렇게 큰 울림이 될 줄 몰랐다. 나는 그 아이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 말은 내게 기도였고, 선언이었고, 삶의 방향이 되었다.

그러나 결심만으로 가정을 지킬 수는 없었다. 낮에는 고된 노동, 밤에는 육아와 피곤함이 겹쳤다. 서로 피곤한 얼굴로 마주 앉은 식탁 위엔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사랑은 있었지만, 우리는 사랑을 '유지하는 법'을 몰랐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말이 서툴렀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 지쳐 있을수록 침묵했고, 그 침묵은 냉소로 변했고, 냉소는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가라앉혔다. 그녀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빛은 점점 무뎠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견딜 여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이 거실을 가득 메웠고, 그 말다툼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다.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그녀는 눈물 없이 말했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날, 나는 붙잡지 못했다. 아니, 붙잡을 자격이 없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를 주었고, 너무 늦게 후회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텅 빈 집 한가운데 앉아 나는 오열했다.

"하나님... 전 또 실패했습니다."

아이들이 남기고 간 옷가지, 장난감, 벽에 붙어 있던 크레용 낙서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들의 웃음소리, 잠든 얼굴, "아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이제는 그 사랑이 내게 형벌처럼 남았다.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지키지 못한 사랑은 변명조차 의미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시작보다 '지속'이 중요하고, 감정보다 '배려'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나는 나의 미성숙으로 인해 가정을 잃었다.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오직 나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가끔은 SNS를 통해 아이들의 사진을 본다. 이제는 많이 자란 아이들. 그 사진 속 아이의 눈매는 나를 꼭 닮아 있었다. 그게 더 아팠다. 내 흔적은 남았지만, 나는 그 아이들의 일상에서 사라졌다.

나는 아이들의 생일이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케이크도 없이 작은 노트에 편지를 쓴다.

“아빠는 네 곁에 없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이란다.”

하지만 나는 절대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또다시 상처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나는 매일 기도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상처 없이 자라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혼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시울을 적신다.

그렇게 긴 방황의 시간 끝에, 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던 나를 향해 아무런 조건 없이 말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녀와 함께하면서 나는 다시 일했고, 작은 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그녀는 때로는 앞에서 길을 밝혀주었고, 때로는 뒤에서 나를 밀어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두 딸을 키웠다.

그 아이들은 나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내 사랑과 시간은 그 누구보다 깊게 섞여 자라났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숙제를 봐주고, 잠든 얼굴에 이불을 덮으며 나는 수없이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이들만은 안전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제가 겪은 어둠을 이 아이들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훌쩍 자라 청년이 되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걱정해주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한국에 있고, 아이들은 호주에 남아 있다. 매일 얼굴을 볼 수 없고, 함께 밥을 먹지 못하는 이 거리감은 내 마음 한쪽을 아프게 한다.

그 아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너희는 내게 진심으로 소중하고, 진심으로 사랑스러운 내 딸들이란다. 함께한 시간이 곧 가족이고, 함께한 사랑이 피보다 진한 인연임을 나는 믿는다.”

언젠가 이 글을 너희가 읽게 된다면, 아빠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꼭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

너희는, 내가 인생의 중턱에서 만난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다.

<에필로그의 시: 사랑이 떠난 자리에서>

말하지 못한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 남아 있었다
눈물보다 더 긴 침묵으로
나는 사랑을 되새기고 있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
오늘도 마음을 물들인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임을

지금의 나로선

그때의 나를 찾을 수 없다

다만 다시는

놓치지 않기를 기도할 뿐

〈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떠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당신에게〉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후회와 미련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고,

그 사랑이 너무 소중해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랑 안에 진심을 담은 사람입니다.

사랑은 때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은 아닙니다.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에 닿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혼자라도 그 이름을 부른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지키지 못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9장: 딸에게 쓰는 편지

— “아빠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다가갈 자격이 없었던 것뿐이야.”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아빠는 네 이름을 수십 번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단다. 목소리는 낼 수 없고, 손을 뻗을 수도 없지만, 아빠의 마음은 한 번도 너에게서 떠난 적이 없단다.

너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 너의 체온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작고 여린 그 숨결 하나하나가 내 가슴속을 파고들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단다. 그날 이후, 너의 손을 잡고 걸었던 모든 순간이 내겐 기도였고, 선물이었어.

네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세상은 멈춘 것 같았단다.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어둠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사라지는 듯했어. 너의 눈빛, 너의 웃음, 너의 재잘거림 하나하나가 내 생의 이유였단다.

하지만 아빠는 그 사랑을 지켜내지 못했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무거운 시간들, 삶을 붙잡느라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내가 너무나도 미안하구나.

가정을 잃고, 너를 멀리 보내고, 점점 너와 나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만 갔단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네가 잠들 때 곁에서 책을 읽어주던 그 소소한 일상이라도 붙잡고 싶다.

SNS를 통해 우연히 본 너의 사진 한 장에 하루가 뒤흔들렸던 날이 있었단다. 그 사진 속 네 눈빛은 아빠를 꼭 닮았고, 그 미소는 네 엄마를 닮았더구나. 너무도 보고 싶었다. 너무... 미안했다.

몇 번이고 편지를 써보았지만, 끝내 부치지 못했단다. 아빠는 네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너의 곁을 지키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은 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딸아,

아빠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늘 너를 위해 기도했어. 네가 건강하길, 너의 웃음이 잊히지 않길, 그리고 네 마음속에 아빠에 대한 미움이 조금이라도 없어지기를...

아빠는 언제나 조용한 시간에 너에게 쓴 편지들을 노트에 써 내려갔단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지만, 아빠의 사랑과 회한을 담은 기록이었어.

“딸아, 오늘도 너를 그리워한다. 너와 걷던 그 우산 아래를 기억하니? 비 오는 날이면 너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생각나. 그 온기가 지금도 내 손에 남아 있단다.”

“딸아, 오늘은 네 생일이야. 케이크는 없지만, 내 마음엔 네가 제일 밝은 촛불이란다. 너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너를 그리워하며 하루를 마무리해.”

세상은 때때로,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아. 특히 말하지 못한 사랑, 전하지 못한 진심엔 더 가혹하지. 아빠는 그 기회를 놓쳤단다. 하지만 딸아, 말하지 못한 사랑도 진짜 사랑이란다.

너를 안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어. 낡은 흑백 프린트, 하지만 그 속엔 나의 영원한 시간이 담겨 있어. 너의 손이 내 뺨에 닿아 있었고, 나는 울고 있었단다. 그 울음은 사랑의 증거였어.

혹시라도, 네 마음속 어딘가에 아빠를 향한 따뜻함이 남아 있다면, 그 마음 하나로 아빠

는 살아갈 이유를 충분히 찾을 수 있어.

딸아, 네가 이 글을 언젠가 읽게 된다면,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단지 다가갈 자격이 없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빠는 지금도 네 이름을 불러보며 잠자리에 든다.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단다. 네가 어느 날, 웃으며 다시 한 번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날이 온다면, 아빠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너를 꼭 안아줄 거야.

사랑한다, 내 딸.

늘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끝없이 사랑할 거야.

너의 아빠로부터.

〈에필로그의 시: 전하지 못한 편지〉

하루에 한 번은

너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불러도 닿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나는 기도처럼 불렀다

그 이름은 나의 숨이었고

그리움의 형태였다

잊혀진 아빠의 그림자라도

너의 기억 속에 남고 싶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이

이토록 무겁다는 걸

나는 네가 떠난 뒤에야 알았다

그러나 딸아,

기억해줘

아빠는 지금도

너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멀어진 관계에 가슴 아픈 당신에게〉

혹시 지금, 사랑하는 누군가와 멀어져

말조차 건넬 수 없는 거리에 있진 않나요?

전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가슴속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때론 눈물로,

때론 침묵으로,
때론 그리움 하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회가 없다면,
그리움 안에서라도 사랑하세요.
진심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보낸 사랑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10장: 무너진 후에야 보이는 것들

— “삶이 산산조각 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호주에서의 삶은 고되고 고독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진심을 보여줄 수 없었다. 페인트 붓을 쥐 손에는 굳은살이 박였고, 밤마다 돌아가는 집 안은 무겁고 침묵뿐이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내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도 잘 견뎌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들곤 했다.

몸은 일찍 늙어갔고, 마음은 자주 쓸쓸했다. 외롭다고 말할 친구도, 고단하다고 기대어 설 품도 없었다. 그래도 일했다. 그것만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에. 새벽에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밤에는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그 노동의 끝에는 늘 침묵과 기도뿐이었다.

삶은 정직했고, 나는 성실했다. 그러나 그만큼 고단했고,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민자의 삶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요한 싸움이었다. 언어 장벽, 문화의 이질감, 정서의 고립감 속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날도 그랬다. 건설 현장의 발판 위, 나는 오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다리는 이미 후들거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피곤했다. 그렇게 몸이 반쯤 공중에 떠 있던 순간, 발을 헛디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떨어졌다. 몸이 허공을 가르고, 다음 순간 땅에 내던져졌다. 척추에 전해지는 고통, 그리고 의식을 잃기 전 들려온 현장 작업자의 외마디 비명.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흰 천장이 눈앞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 깁스로 덮인 허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말, '이제, 끝인가...'

처음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며칠을 누워 있었다. 음식도 거부했고, 재활의지도 없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지난 시간들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겠지..."

그러다가 어느 밤, 병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기도라는 걸 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내실 건가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살고 싶어서였다. 아직도 해야 할 말들이 있었고, 만날 사람이 있었고, 쓰지 못한 고백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도는 절규였고, 동시에 고백이었다.

그 사고 이후, 나는 더 이상 페인트 현장에 설 수 없게 되었다. 생계를 유지할 길도 막혔다. 수입은 끊기고, 삶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다. 너무도 낮은 어둠, 그러나 그 어둠은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다.

나는 묻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가?”

“내가 남기고 싶은 건 무엇인가?”

거울을 보면 더 이상 젊지도, 강하지도 않은 내가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의지와 믿음이 살아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삶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임을.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마주했다. 실패했던 기억, 상처 줬던 순간, 도망치고 싶었던 현실... 그 모든 조각들이 내 삶의 진짜 이야기였다.

붓 대신 펜을 잡았다. 삶을 쓰기 시작했다. 지나간 날들을, 내 안의 감정들을, 회한과 감사, 상처와 회복을. 이 책처럼, 차곡차곡 꺾꾹 눌러 적어갔다. 글을 쓰며 나는 나를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의 약함, 나의 고통, 나의 기도들이 글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볼 수 있었다. 진짜 중요한 것들—사랑, 믿음, 용서, 희망. 그것들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고,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온기 속에 있었다. 그 온기를 나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지만, 뒤늦게라도 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었다.

병실에서 퇴원하고 나서도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가쁘고, 허리는 자주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나는 그 통증을 낫설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나는 아침마다 의자를 당겨 앉아, 다시 한 페이지씩 글을 썼다.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글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쓴 문장을 읽고 울었다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

다. 이 글은 나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글은 나의 새로운 붓이 되었고, 말은 나의 새로운 도배였다. 누군가는 나를 잊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전과자라 불렀지만, 나는 내 인생을 '은혜의 고백'으로 다시 칠하고 있었다.

살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무너진 그 순간에 시작된다. 나도 그랬다. 완전히 무너졌기에, 처음으로 바닥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았고, 내 안에 있던 믿음의 씨앗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매일 다짐한다:

“오늘도 쓰자. 오늘도 살아가자. 아직 쓰지 못한 사랑이 있고,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있다.”

이 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를 회복시키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서. 더 늦기 전에, 더 읽기 전에, 남겨야 할 말들을 담아두고 싶었다.

삶이 산산조각 났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안의 불빛을 보았다. 그것은 작고 연약했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였다. 그리고 그 불씨는 오늘도 나를 살게 한다.

〈에필로그의 시: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들〉

무너졌기에 볼 수 있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기에

내가 살아 있음을 느꼈다

흩어진 삶의 조각들 위에서

나는 기도했고

기도는 다시 길이 되었다

그 길 끝엔
빛이 있었다
아주 작고, 아주 따뜻한
그 불빛 하나가
오늘도 나를 깨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빛 아래에서
다시 한 번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제11장: 다시 한국, 다시 시작

— “이 땅에서 다시, 아내와 함께 거북이처럼 한 걸음씩.”

한국에 올 때마다 나는 늘 막연히 생각했다. ‘언젠가 이곳에서 살아도 괜찮겠지.’ 익숙한 언어, 눈 감아도 그려지는 거리, 고향이라는 이름이 주는 따뜻함. 그것만으로도 나는 한국은 쉬울 거라 믿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한국은 내게 낯선 나라였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사이,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행정 시스템은 복잡했고, 사람들은 숨 돌릴 틈 없이 바빴으며, 도시의 공기조차 각박하게 느껴졌다. 내가 태어난 땅, 그러나 너무 멀어진 감각. 나는 또 다시 ‘이방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지금의 아내와 함께, 그녀의 부모님 곁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장모님은 병상에 계셨고, 우리는 그분의 손을 더 오래 잡고 싶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도전을 함께 나섰다.

호주에서의 삶이 실패였느냐고? 절대 아니다. 나는 호주에서 성공했다. 전과자였던 내가, 영주권도 없이 불법체류자로 시작했던 내가 그 땅에서 기술을 얻고, 인정을 받고,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민권까지 받았다. 그 누구보다도 감사했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다.

하지만 인생에는 또 다른 부름이 있었다. 나는 또 한 번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다.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해주었던 아내와 함께, 이 낯선 고향에서.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큰 꿈은 아니었다. 다만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보고 싶었다. 처음에는 기대보다 불안이 컸다. 물가, 규제,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반응, 그리고 낯선 행정의 벽들. 마치 다시 이민 초기를 겪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커피 한 잔 한 잔에 정성을 담았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전했다. 손님이 없는 날에도, 우리는 묵묵히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서로에게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했다.

'잘 될 거야'라는 과도한 희망 대신, '버텨보자'는 묵직한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우리는 빠르게 가지 않아도 괜찮았다.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고 있었다.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날, 아내는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그래도 한국 오길 잘했어. 엄마 손 잡고 눈 감을 수 있어서..."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 선택은 올바른 길이었다. 아내와 함께한 이 여정은 헛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작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카페는 크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무대이

다. 손님들이 앉은 자리마다 우리는 마음을 놓고, 테이블을 닦을 때마다 감사함을 되새긴다.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삶이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임을. 그리고 그 곁에 누군가 있어 준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다시, 아내와 함께. 거북이처럼 한 걸음씩.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에필로그의 시: 조용한 시작, 끝없는 걸음〉

돌아온 길 위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낮설게 말을 걸어온다

넓은 간판, 봄비는 거리,
서늘한 계절의 공기 속에서도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또 하루를 견딘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거북이처럼 걷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기록이 된다

이 땅에서 다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독자에게 전하는 말: 끝까지 읽어주신 당신에게〉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당신께
마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단지 제 인생의 기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외로움,
무너짐과 회복,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모든 걸음에 바치는 위로의 노래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 서 계시다면,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삶은 우리를 수없이 꺾고 쓰러뜨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가장 높이 닿는다는 걸,
제 인생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의 상처 위에

하나의 봉대가 되길,
누군가의 긴 밤에
작은 불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도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장: 눈물 위에 피는 빛

— “오늘도, 나는 거북이처럼,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걷는다.”

나는 이제야 알겠다. 삶은 어느 나라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다. 그곳이 어디든, 상처는 있었고, 회복은 그만큼 간절했다. 낯선 땅에서의 생존, 고향에서의 정착, 그 모든 과정은 하나의 길이였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나는 묵묵히 발을 디뎠다.

삶은 늘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넌 여기서도 살아갈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길이 맞다고 믿을 수 있니?”

“너는 정말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니?”

나는 그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해왔다. 그 대답은 언제나 쉽지 않았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지금도 나는 커피숍에 서 있다. 카운터에 앉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우유를 데운다. 아내는 옆에서 말없이 정리를 하고, 가끔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본다.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눈물이 있었는지.

그러나 나는 안다. 이 삶은 충분히 값지다. 우리는 이 커피숍에서 또 하나의 인생을 피워내고 있다. 커피 내리는 소리, 손님이 웃는 얼굴, 낯선 이와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 하루하루가 피어난다. 이 작은 공간이 내게는 성소였다. 기도와 감사, 인내와 소망이 녹아든 공간.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아직도 꿈이 있냐”고.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하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단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삶의 정답을 나는 여전히 모른다. 하지만 확신하는 건 있다. 실패가 끝은 아니라는 것,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진짜 힘이라는 것. 내 삶은 실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포기의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다.

나는 오늘도, 이 작은 가게에서 기도한다. 감사하고, 기다리고, 다짐한다.

“하나님, 눈물로 걸어온 길 위에 빛이 피어나게 하소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느린 길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이제, 나는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살아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것이다.”

〈에필로그의 시: 눈물 위에 피는 빛〉

낮선 도시 골목마다

내 걸음이 묻어 있다

눈물 한 방울마다

기도 하나가 뿌려졌고

그 뿌리에서

작은 용기 하나 피어났다

누구는 빠르게 달리고

누구는 높이 올라가지만

나는

거북이처럼 낮고 느리게

그러나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걸음으로

내 삶을 채색해 왔다

그 길 위에 피어난

하얀 등불 같은 희망

그것이 바로

나의 오늘이었다

<독자에게 드리는 마지막 인사>

이 책의 마지막 장을 함께 걸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을 전합니다.

제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굽고 꺾인 길투성이였고,

종종 울부짖으며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위에,

하나님은 조용히 손을 얹으셨고,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사랑은

내가 다시 걸음을 내딛게 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누군가도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의 인생,

그 누구의 기준도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과 희망을 향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다는 것.

눈물 위에 피어난 이 빛처럼,

당신의 삶에도

잊을 수 없는 은혜와 따뜻함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Kevin) 김남주